dongguk UNIVERSITY
Dongguk Business School (MBA)

경영신문

The Dongguk Business School Newsletter
제3호 2014년 4월 14일 발행처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발행인 이영면 주간 여준상 편집장 신영은 TEL 02.2260.8886

2014 경영대학 동문 활동기업 해외탐방 프로젝트

중국 북경을 가다

코트라 중국 북경. 함정오 본부장은 중국의 구매력 급증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구축해야 할 우리의 자세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중국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2014년 2월 13일 이른 오전, 인솔자인 경영대 부학장 정욱 교수를 비롯 15명의 경영대학 학생들은 '동국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탐방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모였다. 이후 2박 3일간 중국 북경을 돌며 동문 기업을 방문하고, 더불어 중국의 문화도 탐방하는 일정은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멤버들은 저마다 새로 접한 세계를 되짚어보느라 바빴다.

경영대학에서 처음으로 주관한 2014 동문 활동기업 해외 탐방 프로젝트 : 북경편 (이하 북경탐방)이 어떠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북경탐방의 첫 일정으로 현대자동차 중국 법인인 '북경현대'를 찾았다. 공장은 북경시의 중심부에 있었으며, 공항이 인접하여 교통이 여러모로 편리했다. 총 세 군데의 공장은 각각 다른 종류의 차를 독립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류부열 홍보부 팀장은 "북경시의 택시 중 80%이상이 현대자동차다"라 갓길에 줄지은 택시를 가리켰다. 탐방 팀은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경현대 인사팀 부장 김영한은 "노동인력의 연령이 평균 26세로 상당히 젊은 편이어서 공장을 거의 24시간 가동시킬 수 있으며 생산성도 높은 편이다"라고 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지 면 안 내

동문 활동기업 해외탐방 프로젝트	2면
신규 교원 소개	3면
경영대 소식	4~5면
학생 정·부회장 인터뷰	6면
경영대 신입생 인터뷰	7면
경영대 동문 인터뷰	8면
아싸(Outsider)들을 위한 TIP	9면
경영대 금연캠페인 특집	10면
경영대 생활 – 신입생은?!	11면

"안일했던 내 자신을 일깨워준 좋은 경험"

북경현대 · 북경블랙야크유한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문

▶ 1면에서 이어집니다.

김병태 생산부 차장 또한 "북경 당국이 자동차 등록 대수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작년에는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다"라며 탐방 팀을 놀라게 했다.

이튿날 오전에 방문한 곳은 경영전문대학원 동문 강태선 회장의 '㈜블랙야크'였다. 블랙야크는 1998년 중국시장에 북경블랙야크유한공사(Blackyak Outdoor Products Co.,Ltd.)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이래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만리장성 보호 활동 등의 사회 공헌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강의실에서만 배우던 여러 생산운영관리 이론들을 실무자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Postpone Strategy"나 수요 예측 전략 등의 어려움을 실제로 듣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론으로 내용만 배웠을 뿐, 왜 이것을 배우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수업시간에 배웠던 이론들의 도출 배경이나 의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권혁재 학우(경영10)는 말한다. 더불어 실제 블랙야크의 안테나샵을 방문하여 한국과 중국 아웃도어의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블랙야크 북경지부와 자금성 견학을 마친 후에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베이징 주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코트라) 중국 지역본부를 방문했다. 코트라 중국 지부는 한-중 기업 간 접촉 기회를 늘리며 대중 투자 및 교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기업에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코트라 견학은 단순히 기관의 활동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한 시간이었다. 함정오 코트라 본부장은 중국의 구매력 급증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구축해야 할 우리의 자세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한류 문화에 힘입어 큰 꿈을 안고 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 학생들이 그 기대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타국의 유학생을 친구로 사귀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뜻 깊은 기회."라며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코트라에서의 강의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중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기존의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변화를 물색할 필요성을 느끼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2박 3일간 탐방팀이 본 것을 단순히 중국이라 부르기엔 부족하다. 그들은 다가올 미래에 있을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번 해외탐방은 학부생들에게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평소 보던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해외여행의 장점이 아닐까. 조수빈 학우(경영09)의 말은 이번 해외 탐방의 느낀 점을 잘 표현해준다. "안일했던 내 자신을 일깨워준,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윤정희 기자, 임상기 기자
김성원 기자, 박준용 기자

2014학년도 신규 교원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임성묵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담당과목 : 운영관리

김문정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담당과목 : 조직행위, 조직커뮤니케이션

송해근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담당과목 : 경영수학

류주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담당과목 : 마케팅원론, 마케팅리서치

서성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 박사
담당과목 : 재무관리, 투자론

정갑수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담당과목 : 중급회계, 재무회계

금융권 취업 전략적 준비, CFP 취득해야

지금은 자격증 인플레이션 시대다. 취업난에 온갖 자격증이 쏟아져 나오면서 단순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차별화 되는' 자격증을 따는 게 관건이다.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은 투자, 세금, 은퇴, 보험, 부동산, 상속, 증여 등 금융전반에 대해 일정한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갖춘 국제 공인 자격증이다. 다른 국제 자격증에 비해 준비 기간도 짧아 4~6개월 준비로 합격할 수 있다. 실제로 휴학과 방학기간을 활용한 대학생들의 합격률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CFP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AFPK(개인재무설계사) 자격인증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FPSB가 정한 지정 교육기관에서 최소 2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야한다. 단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교육 면제가 가능하다.

CFP 인증시험은 지식형 시험과 사례형 시험으로 구분되어 이틀에 걸쳐 시행된다. 지식형 시험은 재무설계원론, 재무 설계사의 윤리와 법률,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부동산 설계 은퇴설계, 세금설계, 상속설계 총 8가지 과목의 이론을 보는 시험이다. 문항 당 1점이고 합계는 180점이다. 사례형 시험은 단일 사례와 복합 사례로 나눠지며 직접 계산을 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항 당 2점이고 합계는 160점이다. 지식형과 사례형을 합해 340점 만점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70이상이면서 과목별 30점 이하의 과락이 아니면 합격이다.

CFP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자격인증까지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요구되는 실무 경험으로는 고객과의 관계정립, 고객 관련 자료수집,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재무 설계 제안서 작성 및 실행 등이다.

마지막 CFP 자격인증의 단계는 윤리요건 충족이다. 한국 FPSB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윤리서약을 한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자격인증이 신청이 가능하다.

CFP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은 증권사, PB, 은행자산관리사, 금융자산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등 고객 관리와 기업 재무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최근 금융권에서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CFP 자격자로부터 자문을 받은 고객의 만족도는 87%로 높은 반면, 자격을 소지하지 못한 재무 설계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고객의 만족도는 72%에 그쳤다. 실제로 국내 금융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취득하기 쉽지 않은 CFA(국제재무분석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AFPK(개인재무설계사) 자격증은 채용 때 눈여겨본다."고 밝혔다.

CFP는 다른 국제 자격증에 비하여, 국내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접근이 용이한 편이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단기간 안에 시험에 합격 할 수 있다. 또한 CFP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덕분에 업무성과는 만족스러운 보상으로 돌아오는 만큼, 현재 금융권을 지원하려는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CFP 자격인증자는 전 세계 총 153,376명으로 69,127명이 보유한 미국이 세계1위, 한국은 3,813명으로 세계 8위에 링크 되어있다.

CFP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FPSB(www.fpsbkorea.org)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김은영 기자

“ 풋풋함 가득, 우리가 경영대의 새내기예요 ”

2014년 경영대에 300명의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이를 맞이하여, 지난 2월 18일, 경영대에선 14학번을 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경영대 학생회(워너비즈)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으며, 신입생들을 향한 재학생들의 환영의 박수와 함께 시작되었다.

행사에서는 가장 먼저 오랜 역사의 경영대학을 소개하며 경영학도로서의 자부심을 끌어올렸다. 뒤이어, 신입생들의 반 선택 후 분반 과정이 진행되었고, 새내기 배움터 설명과 교내 동아리 홍보 등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은영 기자

동국대학교 입학식 거행, 새로운 출발

2014학년도 동국대학교 입학식이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서울캠퍼스 만해광장에서 거행되었다. 김희옥 총장은 “개교 108주년을 맞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대학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며 입학을 축하했다. 각 계, 각 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신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또한 인기 아이돌 걸 그룹 ‘에이핑크’의 일원인 손나은 양도 연극학부 14학번으로 입학하여 화제를 모았다. 2014학년도 입학 인원은 총 3,074명이며, 경영학부의 경우 299명을 모집했다.

식순 이후에는 신입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학부모 대학 생활 안내’ 설명회가 본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학사제도, 장학 제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 안내 등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김성원 기자, 박준용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52명 합격 전국 10위 지난해와 동일

공인회계사반(동현제, 지도교수=조광희)은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지난 2월 치러진 공인회계사 1차 시험결과 5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10위를 달성했으며, 오는 6월 말 2차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9월초 2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입생 커리큘럼, 이것을 명심하자!

1. 교양교육과정 이수 기준 대폭 변경

2014년도 신입생부터 교양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다. 기존 공통교양으로만 분류되던 과정이 대학생활탐구, 더불어 사는 삶(자아성찰, 21세기 시민), 글쓰기, 세계명작세미나, 글로벌(리더십&프론티어십, 지역연구, 영어)의 5개 영역 8개 부분으로 나뉘어 졌다. 경영대 학생의 경우 21세기 시민 영역, 리더십 영역, 지역연구 영역의 과목은 1학기에만, 「불교와 인간」, 「나의 삶, 나의 비전」과 글쓰기 영역의 과목은 2학기에만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세계명작세미나 영역은 학기당 1과목만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교양교육과정 과목들은 학기 중에는 재수강이 불가능하고 계절 학기에만 재수강이 가능하니 유의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르마칼리지 홈페이지(http://generaledu.dongguk.edu)에서 확인 가능하다.

2. 사회봉사 1학점 졸업 요건으로 의무화

경영대는 2013년도 신입생부터 사회봉사 1학점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의무화했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학기 별로 별도의 수강 신청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를 선택하고 그 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본교의 예비교육을 포함해 개별 봉사활동, 활동평가회 참가, 소감문/평가서 제출을 포함해 최소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방학마다 실시되는 학점봉사캠프 미동을 통해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학 기간 중 2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며,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국참사람봉사단(본관 3층 / ☎02-2260-3058,9)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임상기 기자

학위수여식 거행, 총 233명의 경영대학 동문 배출

2월 19일 오후 3시 본관 3층 중강당에서 열린 경영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장면, 총46명이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취득했다. 이와 별도로 21일 오후 11시 중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학위 180명, 석사 학위 3명, 박사학위 4명이 학위를 받아 총 233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왼쪽 사진은 MBA 봄 학위수여식 전 리셉션(2014. 2. 19) 장면. 오른쪽은 미국 뉴욕주의 클락슨 유니버스티 교수와 학생들이 동국대학교를 방문하여 MBA 참관수업(2014. 3. 10) 후 찍은 사진.

MBA 신입생 환영회 및 MT

지난 3월 22일 1박 2일로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개최된 MBA 신입생 환영 MT에 교수 및 MBA동문 등 약 170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 워너비즈

- 제 46대 학생 정·부회장 김정도·서욱진 심층 인터뷰 -

제46대 경영대 학생회장 김정도(우), 부회장 서욱진(좌)

새 학기의 시작이 설레는 것은 비단 신입생들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제46대 경영대 학생 정·부회장에 당선된 김정도·서욱진(경영12) 학우도 새 학기가 시작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서욱진 학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많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불필요한 관례가 많은 것 같고, 둘째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정이 부족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소외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쳐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정도·서욱진 학우는 이전 학생회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약을 묻자 김정도 학우는 "중요하지 않은 공약은 하나도 없다"며 "다만 학생 복지에만 치중하지 않고,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타 학교와의 토론 대회도 계획 중이고, MBA와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학생 복지와 관련된 경영관 스탠딩 PC 추가 설치와 흡연실 설치도 여러 학교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 냈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다. 이러한 공약들이 한 번에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인만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영대 학생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

>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후유증도 크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되지 않을까"

회계 감사도 엄격하기 때문에 천 원짜리 영수증 하나 쉬이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 학생들은 학생회의 활동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김정도 학우는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공감한다. 그동안 학생회와 학생들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임기동안 학생회가 먼저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례보고회를 열고, 통장내역도 공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느끼고 있다시피 현재 경영대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학과 통합이 공표된 이후로 화합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회장끼리도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형편이다. 이러한 성장통을 김정도·서욱진 학우는 현명하게 풀어가고 있었다. 지난 1월부터 '경영대 대표자 연합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어색하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학회장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경영대 학생회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줌으로써 사기 진작을 도왔던 것. 서욱진 학우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후유증도 크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학과 통합 문제는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도 같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있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정도·서욱진 학우는 행동할 때마다 'FM'(Field Manual)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FM, 바로 행동의 정석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FM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꾸준히 만들어나가면 그것이 자신만의 FM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정도·서욱진 학우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경영대 학생회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학생회 실에서 다음 발돋움을 준비하는 이들이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고, 학생들은 학생회를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김성원 기자, 임상기 기자

좌측부터 김자영, 문현, 김도원, 최호정 학우

신입생, 새로운 세상으로 걸음 내딛는 그들

대학생활에 있어서 3월이란 특별하다. 신입생들에겐 더욱 그럴 것이다. 2014년 2월 12일과 14일, 양 일에 걸쳐 경영대학 2014학년도 신입생들을 만났다. 김도원 학우, 김자영 학우, 문현 학우, 최호정 학우가 그들이다.

Q. 지원하고 합격한 이야기

도원 저는 3수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신나게 놀고, 재수하면서도 정신 못차리고 계속 놀았어요. 그러다 친구들이 다 대학생이 되고 군대가는 걸 보면서 힘든 3수 생활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논술 전형으로 동국대에 합격했어요. 논술을 보러 오면서도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부모님께 동국대 경영대학에 합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평소 저를 질책만 하시던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려주시고 어머니는 펑펑 우셨어요. 정말 기뻤죠.

문현 저는 정시로 동국대에 오게 되었어요. 수시로 지원했던 대학들에 다 떨어지고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중에 가장 메리트있는 곳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동국대 경영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동국대 경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여길 들어가면 내가 졸업할 때쯤에는 더 좋은 학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영 저는 영어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했어요. 고 3때 수업을 듣는데 수업 시간 중에 학교 선생님께서 가끔 옛날 제자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 때 동국대 경영학과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어로 수업한다는 말에 관심이 갔어요. 개인적으로 영어 수업을 원해서 원래 국제학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동국대 경영대학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니 AACSB 인증(경영학교육 국제 인증)도 받은 학교라 제가 원하는 길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호정 저는 수시2차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왔어요.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 중에서 제가 대학을 잘 온 편이에요. 학생부랑 수능 점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제가 합격해서 기뻐요. 주변에서도 대학 어디 들어갔냐고 물을 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Q, 대학 와서 하고 싶었던 것

도원 사실 저는 무얼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무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더 커요. 제 친구들은 벌써 3학년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는데 저는 조금 늦었잖아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대기업 서포터즈 활동 같은 것들도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문현 저는 벚꽃이 필 때가 되면 공강 시간에 남산 가서 친구들이랑 막걸리를 먹고 싶어요. 한 선배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고학년이 되면 할 수 없는 것들을 1학년 때 해보라고 하셨어요. 공부나 스펙 쌓는 것도 좋지만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영 저는 미팅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MT(Membership Training)도 가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런 게 좋아요.

호정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요. 선배랑 동기들도 많이 사귀고 평소에 배울 수 없었던 것들도 배우고 싶어요. 고3 때는 그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했는데, 그 때마다 '대학 가면 운동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재밌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는 내내 신입생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표는 어떻게 짜는지, 학회는 어디를 들어가야 하는지, 1학년에게 추천할 만한 대외활동은 뭐가 있는지 등을 내게 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절반씩 공존하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때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일테다.

힘들게 들어온 대학인만큼 그들의 청춘이 밝게 빛나기를 기원한다.

김범기 기자, 김성원 기자, 최단비 기자

"넓은 시야와 적극적인 자세가 발전의 원동력"

심재승(경영 12졸) 동문을 만나다

우리 경영대학 동문 가운데, 큰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 중인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꾸리며 영업 관리를 하고 계신 선배님이 계신다. 직무에 대한 정보는 물론, 후배들에게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세를 제시하는 진심어린 조언도 해 주시는 심재승 동문이다.

1. 담당하시는 업무, 그리고 현재 직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대자동차 중국 사업본부에서 근무 중입니다. 소그룹인 사업계획 워킹그룹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수요 관리, 판매동향분석, 회의 시 의전지원을 비롯한 판매 회의체 대응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 이 방향으로 지원했고, 입사면접을 통해 영업 관리에 해당하는 현재 직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중어중문학과를 복수전공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다녀오면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에 중국 사업본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 자신의 어떤 역량이 현재 직무에 종사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일에 넓은 시야를 가지려는 자세가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 측면만을 파고들기보다는 다양한 방향에서의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보며 생각의 범위를 넓히려 합니다. 사업계획과 영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특히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자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리고 교환학생 당시에 중국 내에서 좋은 학교로 인정받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던 것도 현재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북경공장에 다양한 이유로 생성된 재고들이 많았는데, 그 재고를 맡아서 처리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가 기억나네요. 자동차산업에서는 재고로 인해 발생되는 보관 및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이 큰데 처리가 참 어렵거든요. 중국 주재원들도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재고인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맡게 돼 부담감이 정말 컸죠. 하지만 다양한 부서와 꾸준히 접촉하며 담당자와 친분을 쌓고 나니 소통하는 것이 수월해졌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도움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주재원들과 수없이 연락하고 영상회의까지 동원해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6개월 만에 2천대 가량의 차량 재고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후속작업 진행 중인 최근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해내고서 업무능력도 인정받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4. 업무 상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이고,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판매 및 영업을 위한 회의가 잦은데 각 회의마다 요구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영업에 관련된 각각의 자료에서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걸러내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것을 배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죠.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실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용적인 것들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업무를 진행할 때도 많으니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도 있었죠. 인턴 생활을 통해 현업 경험을 해봤더라면 적응이 빨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나 업무가 주어질 때, 나를 시험해보는 계기로 삼고 노력해보니 모두 소중한 기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나면 앞으로는 더욱 수월하게 업무를 해낼 수 있으리라는, 발전에 대한 기대로 견뎠죠. 후배 여러분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해당 직무가 원하는 인재상, 혹은 선호하는 스펙이 있나요?

해외 영업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능력을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타깃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숫자에 대한 감각이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영업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더욱이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이를 위해 저는 복수전공 및 어학연수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 9면으로 이어집니다.

▶ 8면에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타깃 시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깊게 알아보는 것은 업무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제 경우엔 업무에서 타깃으로 하는 시장이 중국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시장, 문화, 최근 이슈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능력은 숫자에 대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숫자는 천 단위, 만 단위 정도지만 실제 회사 업무에서는 적게는 1억부터 1000억까지 쓰이게 되니 숫자 하나만 잘못 써도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겨우 숫자 하나가 그렇게 치명적이기까지 한가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 회사 내에서는 보고서의 오자는 애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숫자는 하나라도 틀리면 그 보고서의 작성자부터 해당 부서 상사까지 모두 불려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수치에 대한 감각이 중요한 것이죠.

6. 본인이 원하는 후배 사원은 어떤 사원인가요?

팀 분위기를 활기차게 하고 서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후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 관한 센스가 있는 게 좋겠죠. 신입 사원에게 업무상으로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처음에 업무가 미숙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일은 하다 보면 느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분위기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신입사원이 꼭 갖춰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7. 지금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면 ‘ 아이것만은 꼭 해볼 걸 ’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워낙 봉사를 좋아해서 학교 학점봉사, 동국벗, 해비타트 등 여러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쉽게도 해외봉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면 여러 기업에서 해외봉사를 후원해주고 있는데 저는 아쉽게도 기회가 닿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것은 봉사활동 자체가 갖는 의미도 있지만 봉사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스스로 찾아 나서 온 친구들은 대부분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했기에 봉사를 더 다양하게 해보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윤정희 기자, 조윤재 기자

아싸(Outsider)들을 위한 TIP!

부푼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경영대 학생들. 하지만 막상 캠퍼스에 들어 오니 사소한 것 하나하나 혼란스럽고, 궁금한 것은 많은데 맘껏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다. 더욱이 선후배 관계가 넓지 않은 아싸(Outsider)들은 정보를 얻을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런 아싸들을 위해, 간단하지만 대학생활을 훨씬 편하고 알차게 만들어줄 조언들을 준비했다.

1. D-Yeon과 학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자.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가 절실한 신입생에게, 재학생들의 커뮤니티 디연(www.dyeon.net)과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둘러볼 것을 권한다. 디연에는 수년간 쌓인 강의 정보는 물론 학교생활에 관련된 각종 질문들을 해결해 줄 얼굴 없는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다. 비싼 전공서적을 새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디연 마켓에 들러보자. 한 학기 정도 쓴 책을 반값에 가깝게 살 수 있다. 또 여기서는 학교 근처의 원룸 정보를 얻거나 직거래를 할 수도 있다. 다양한 동아리나 아르바이트, 이벤트의 홍보글도 디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들러볼 것.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각종 참여프로그램이나 장학공지가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곳이다. 공지사항 란을 자주 확인하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필수 일정이나 각 일정별 자세한 정보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 동아리활동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얻은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을 꼽는다. 다양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볼 수 있기 때문. 특히 같은 목적과 관심사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욱 빨리 친해질 수 있는데, 아싸에게는 학교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아리에서는 여러 학과의 학생들과 만나며 시야를 넓히고 많은 활동을 통해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동아리 활동을 오래 하지 않고 금방 그만둔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동아리의 활동들을 잘 살펴 자신과 맞을지 꼭 알아본 뒤 가입할 것.

3. 수업과 학점관리

먼저, 앞으로 리포트를 작성할 일이 많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파악하는 일이다. 따라서 평소에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해 메모하고, 특히 과제를 내 주실 때 요구하는 형식, 주제, 분량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긁어다 붙이는 것은 금물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리포트를 읽는 교수님들 눈에는 그것이 어디서 베껴온 자료인지도 쉽게 보인다. 자신의 생각을 성의 있게 쓰는 것이 좋은 리포트를 위한 자세.

둘째, 눈에 띄어야 할 때 숨지 말자. 교수님이 던진 질문에 강의실이 정적에 싸인다면? 그대로 입을 다물고 앉아 있기보다 아는 선에서 생각을 말해보길 바란다.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학생으로 교수님의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질문에 당당히 대답하고 수업에 성실히 참여한다면 성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짜 실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눈에 띄어야 할 때가 있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아직 강의실 위치나 학교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지각할 위험이 많으니, 강의 시작 시간에 딱 맞추기보단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각 수업마다 강의방식과 평가방법이 천차만별이니 첫 수업의 강의 소개뿐만 아니라 디연의 강의평가를 확인하고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며 중요한 사항을 지킬 것.

4. 적극적인 마음가짐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한 것이 신입생이 가진 특권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앞으로 만날 대학생활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적극적인 태도로 기회를 탐색해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난다면 알찬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경영대 학생들, 특히 아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윤정희 기자

금연 성공자, 모태 비흡연자 만나다!

2년 前 금연 성공! 경영학과 08학번 강XX

저는 금연을 성공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경영대 내 흡연 지정 구역을 정해놓고 흡연자들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담배를 피울 때는 그런 고충이 없었지만, 현재는 지정 구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담배연기에도 비흡연자나 금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배연기가 강의실 내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통행 중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 그들이 막무가내로 내 뱉은 침 등을 보면 불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도 흡연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흡연자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비흡연자들의 마음도 이해하는 편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그리고 또, 비흡연자를 위한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 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태 비흡연자! 회계학과 12학번 이XX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워 본 적 없는 학생입니다.

학교에 2년 동안 다니면서 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선·후배 친구들 등 제 주위에는 흡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울 때 같이 있지만 않으면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흡연 지정 구역이 강의실 입구와 커피숍 인근에 있다면 당연히 비흡연자도 자연스레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흡연자가 피해를 입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학생들이 흡연 지정 장소를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비흡연자들은 피해보지 않고 흡연자들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만든 흡연 장소가 결국엔 비흡연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새 학기부터는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욱 기자, 임상기 기자

DBS News 페이스북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영 대학 기자단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이번 2014년도 새 학기를 맞아 기자단 페이스북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3호 신문에서는 기자단 페이스북의 소개와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DBS News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경영대 각종 홍보 및 소식 전달

전달성이 다소 부족한 지면 신문을 보완해서 경영대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면 신문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경영대 학생들의 참여 공간

신문의 구성을 보면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코너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학생 참여 코너 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평소에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도저히 얼굴 보고는 말 못하겠는 그런 말들 혹시 있으신가요? 경영대 신문에서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 사과, 고백 등 어떤 내용이든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자단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학생 참여 코너 2 〈SURVEY〉

이번 3호에는 아쉽게도 빠졌지만 지난 창간호와 2호를 봤다면 알 수 있듯이 DBS NEWS에서는 매번 다른 주제로 SURVE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경영 대학 학생이라면 기자단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SURVEY에 재미있게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꼭 해보고 싶은 SURVEY 주제가 있다면 저희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세요. 참고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주제로는 '이런 학생, 이런 수업 싫어요!'와 '조별 과제에 대한 SURVEY'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학생 참여 코너 3 〈경영대 기자단에 하고 싶은 말〉

경영 신문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기사가 다음 호에 실리면 좋겠다, 이런 점이 아쉽다, 등 경영대 기자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자단 페이스북에 메시지 남겨주세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영대 여러분과 소통하는 기자단 페이스북이 되겠습니다

3) 경영대 내 스터디 그룹 모집

경영대 학생들 간의 각종 스터디 모집을 원할 경우에 기자단 페이지에 쪽지를 보내 주시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집을 공고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DBS News 페이스북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서 DBS News를 검색하고 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그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경영대 기자단과 신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경욱 기자, 임상기 기자

신입생은?!

꽃들이 만발하는 3월, 상큼한 신입생들을 위한 3월. 두근거리고 활기찬 3월.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걱정과 근심이 유독 많아진 신입생들을 위한 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신입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입시 경쟁 레이스를 뚫고 올라와 내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전국 각지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고, 대학생활의 꽃인 미팅과 소개팅을 할 수 있고, 술을 먹고 취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정신없이 놀다가 F학점으로 성적표를 도배 할 수도 있다.

"신입생은"
가방이 있지만, 대학생인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영어로 된 전공 책을 손에 들고 다니고 언덕, 산길이지만,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에, 7cm가 넘는 하이힐을 신고 급경사를 누비고 추운 3,4월이지만 ,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마이를 입고 코를 훌쩍이는 귀여운 허세를 부려 볼 수 있다.

"신입생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 도중 배고파서 야식을 시켜 함께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키기 위해 남산으로 함께 산책 할 수 있고, 남산 꼭대기에서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 야경의 아름다움을 벗 삼아 맥주를 먹으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더 친해질 수 있다.
참 좋을 텐데... 다음날이 시험이 아니라면...

인생에 한번밖에 없을 대학교 1학년 신입생시절...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많은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을
어정쩡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더 좋은 대학에 대한 갈망으로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신입생답게 1학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사회가 원하는 스토리이자 스펙보다 더 중요한 요소 이지 않을까?

안현준 기자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타 과 학생들이 본 경영대 학생들 이모저모

경영대 학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의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www.facebook.com/dbsnews

토목과 07학번 엄용대 현재 교내 야구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후배들 중에 경영대 학생들이 몇몇 있다. 경영대 후배들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 왜냐하면 동아리 내 업무를 시키면 그 누구보다 확실히 해낸다. 책임감도 강하고 업무처리 능력도 굉장히 탁월한 것 같다.

법학과 13학번 강현영 지난 학기에 교양수업에서 경영학과 학생과 팀 프로젝트를 함께 한 적이 있다. 리더십도 강하고 팀플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았다. 경영대 학생들이 모두 다 우수하다고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학교생활 중 처음으로 접해 본 경영학과 학생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고, 현재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체육교육과 09학번 김상현 체육관에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경영대 여자 학생들을 봤는데 미모가 대단한 것 같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중이다.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준비하려고....

영어통번역학과 09학번 이성훈 경영학과 친구들 몇 몇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들 모두가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영어도 잘하고, 리더십도 강했지만 사실 조금 냉정하고 차갑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자기 할 일만 딱 딱 하고, 계산적이었다. 속된말로 조금 약았다는 생각이 드는 때도 꾀나 있었다.

정리=박경욱 기자

경영대 Fashionista

허수빈
(경영14)

넥워머 guess
외투 보세
스웨터 자라
치마 플라스틱 아일랜드
구두 소다
가방 루이비통

"저는 평소에 어두운 색상을 옷을 즐겨 입어요. 골격이 도드라지는 하체를 가리기 위해 플레어 치마나 스키니 진으로 스타일링을 주로 합니다. 오늘은 신입생 OT라서 평소보다 화려하게 입고 왔는데,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어서 쑥스럽네요.
옷은 주로 인터넷에서 구매하지만 온라인에서 옷의 느낌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장에 가서 입어보고 구매를 결정해요. 쇼핑은 주로 취향이 비슷한 친구나 저에 대하여 잘 아시는 엄마와 함께하는데, 제가 결단력이 부족해서 종종 피곤해 하시곤 한답니다. 저는 동국대 경영학과 신입생이 되어서 굉장히 설레요. 앞으로 항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한 번 패셔니스타가 되보고 싶어요."

김은영 기자

眞言不出口

"참된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동국대학교 경영대 신문사 기자단 2기를 모집합니다.
자랑스러운 경영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일정 : 2014년 4월 14일 ~ 5월 20일까지
지원방법 : 학교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작성 후 출력하여
학사운영실(담당:박연주) 제출
지원대상 : 1차-2014학번 및 1학년, 2차-전 학년
활동기간 : 최소 1년 (혹은 6개월)
추가혜택 : 신문사 기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